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여성 실직자 양산

"해고제한 특별법 제정을"

여성단체연합 '고용불안정 실상...'세미나

최근 외국 자본이 세운 전자회사의 휴폐업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일본, 미국 현지농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폐업수당 지급차원이 아니라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휴폐업과 해고를 제한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효재)이 2일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선 휴·폐업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실태가 발표되었다.

'여성노동자와 고용문제'를 발표한 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석분씨는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1만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감원, 해고됐고 현재도 경인지역 대구 등에서 휴·폐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70년대말 가발·섬유부문 여성노동

자들의 대폭 감원·해고현상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전자, 섬유, 신발 등 여성노동자 집중산업에서 자동화와 정밀산업으로 업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

투쟁에 머물렀던 점을 지적, 최근 산업구조개편으로 진행되는 휴폐업현상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폐업철회 요구보다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문제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한국사회연구소 박준식 연구원은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부당휴폐업 및 해고제한에 관한 특별입법 제정 △외자계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강화 △직업훈련 기술교육 강화 등을 제도적 법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93년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자들이 실업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실업보험제도 도입과정에서 노동

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버스 안내원을 없애면서 수많은 여성 버스 안내원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해고된 사실, 70년대말 가발, 섬유 등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감축된 것은 여성들은 '결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어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배려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재은씨는 "여성노동자들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다는 인식이 크게 사라진 만큼 현재 대책없이 여성들을 내모는 휴폐업과정에서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기자〉

서울대 축제기간중 열린 장터에서 이들 노동자들이 구워낸 부침개는 부당 휴폐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전자·섬유·신발 분야서 대거 밀려나

저 산업예비군으로 밀려나는 여성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구조조정과 고용문제'를 발표한 한국사회연구소 전병유 연구원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중인 현 산업구조조정은 "제조업 부문에서 남성노동자 감소, 비제조업부문 여성노동자의 임시고용, 일일고용, 파트타임고용 증대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여성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밝혀냈다.

79년 가발공장이었던 YH의 폐업철회투쟁이 노동자 생존권



업종전환으로 해고당한 대표적 사례

크라उन전자는 전자회사가 정밀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을 대책없이 내몬 대표적 인 사례로 꼽힌다.

카 스테레오 생산업체였던 크라운전자는 모회사인 (주)남성이 지난해 네덜란드의 다국적기업인 필립스사와 합작, '필립스정밀코리아'를 설립하면서 11월 일방적으로 휴폐업, 노동자들이 1백80여일동안 '필립스정밀코리아'로의 고용 승계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영숙(26)씨는 "농성을 시작했던 2백60명 가운데 1백60명 정도가 대부분 훨씬 조건이 안좋은 하청 전자회사로 이직했어요. 특히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

쩔 수 없거든요"라고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서울대 인문대 앞에서 김밥, 빈대떡, 순대, 생두부, 막걸리 등을 파는 장터를 열었다.

30여명의 조합원들이 각자 자취방에서 가져온 부루스타, 도

어느날 갑자기 조건 안좋은 회사로

크라उन전자 노동자들 1백80일째 '고용계승 투쟁'

마, 칼, 프라이팬 등으로 날렵하게 부침개를 척척 만들어내는 이들은 "업종을 바꾸면서 무조건 노동자들을 쫓아내버리는 회사에 일격을 가할 겁니다. 당연

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새로운 업종으로 옮겨줘야죠"라고 말한다.

이들이 성공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업종전환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된다.

4년 전인 86년에는 1천2백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했던 크라운전자는 계속적인 인원감축으로 지난 해 휴업당시 2백60여

명밖에 남지 않게 됐다.

"왜 우리 여성노동자들만이 항상 인원감축·휴폐업의 첫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서울대 곳곳에는 이들 장터를 후원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백80일 이상 학교로부터 강제휴학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기 거리에서 직장폐쇄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싸우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크라운전자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